

조선

2017년 매출 감소는 Old Story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098-6699
hyun.kim@meritz.co.kr

RA 최치현

02. 6098-6669
chihyun.choi@meritz.co.kr

1) 현대중공업그룹, 별도기준 매출 목표 현대중공업 15조원과 현대미포 2.3조원 제시
2017년 별도 기준 매출 목표를 현대중공업 14조 9,561억원, 현대미포조선은 2.3조원으로 제시. 수주목표는 업황 불확실성 높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임. 이외에는 안전, 수익성, 책임경영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2) 삼성중공업, 자구계획 이행과 2017년 인도 예정인 주요 공사들의 공정 준수
생존이 최우선, 자구안과 경영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 생산 시수와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생산효율화 향상이 필요함.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7년 인도 예정인 Ichthys CPF, Prelude FLNG, Egina FPSO의 공정을 준수.

3)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확보가 2017년의 핵심 사항
정부 발주 조기화가 기대되는 특수선 사업부를 제외한 상선, 해양의 발주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구계획 이행과 신규 수주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 또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4)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4일 급락, 적극 매수 구간으로 판단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매출 가이드를 공시한 후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로 4일 주가 급락(현대중공업 -4.8%, 현대미포조선 -4.1%). 업계 평균 수주잔고가 1년 수준(2017년 70%, 2018년 30% 인식) 임을 감안하면, 2017년 매출액 감소는 예견된 내용임. 공시를 하지 않은 삼성중공업(2016년 10.6조원, 2017년 7.3조원 예상), 대우조선해양도 30% 전후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

현대중공업은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5조원 감소하나,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회사 현대케미칼(MX 연 120만톤, 경질납사 100만톤 생산)이 가동되고 평균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유부문 매출액은 2조원 증가가 예상. 따라서, 2016년 연결 매출액 38조원에서 2017년 연결 매출액은 34조원 수준으로 11% 감소, 동종업계 내 연결기준 매출 감소폭이 가장 작음. 현대중공업의 사업분할로 신설되는 3개 사의 가치를 장부가(현대대로보틱스 2.3조원,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0.7조원, 현대건설기계 0.7조원)로만 평가하고, 존속법인(현대중공업 11.3조원)을 업종 평균 PBR 0.6배로 적용하면 시가총액 10.5조원(1월 4일 종가)이 Bottom으로 판단. 4일 증가 수준은 적극 매수 구간임.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최치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